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일문 암송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오늘, 종려주일 (2·3부는 가족연합예배)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 따르리

오늘 종려주일(2·3부는 가족연합예배)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의 클라이맥스인 고난주간에 우리 삶의 초점이 십자가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히 12:2).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월~금요일, 04:50)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꼭 나오십시오. 성도님들은 자신이 속한 금요찬양집회의 교구좌석(17교구는 대학·청년부좌석)에 앉으시면 됩니다. 다른 그 어느 때보다 보혈의 말씀(히 13:12)이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금요일 금식, 칸타타 및 제3차 성찬식(금요찬양집회, 19:30)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에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 동안 금식하십시오.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대하 20:3). 특히 성금요일 집회에는 그동안 성도들과 연합찬양대가 준비한 '그리스도인의 삶' 칸타타가 있으며, 이후에는 말씀과 제3차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칸타타 악보와 말씀이 실린 예배로쉬를 드려니 준비된 심령과 보혈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골 1:20).

십자가의 영광, 부활절(다음 주일)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끝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과 기쁨을 다음 주일에 있을 부활주일예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벧전 1:3). 마음뿐만 아니라 정성스러운 헌금도 준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찬양예배 시에는 연합찬양대의 특별찬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

제42대 장로·제22대 안수집사·제50대 권사 피택자 결정

지난 주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제42대 장로·제22대 안수집사 후보자에 대한 피택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당회에 위임하였던 50대 권사 후보자도 피택되었습니다. 이 결과보고를 위해 공동의회를 다시 열어 개표 결과를 알리려 하지만 <주간충현> 공고를 통해서 이를 대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피택자들은 오늘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수의 좋은 일꾼'(딤후 4:6)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피택자 명단은 본지 5면 참조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로마서 3:20)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나 할례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법의 요구가 담겨 있다(창 17:5,7,10). 만일 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면 그는 법을 어긴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롬 2:12,23,25). 이제 3장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할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행하심과 약속을 다 소멸시켜 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맺으신 언약을 전혀 없었던 일처럼 유대인들을 버릴 수 있을까?" 그러므로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라는 질문으로 3장을 시작한다(롬 3:1). 아마도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것으로 보아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바울이 대답하리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큰 유익은 자기 자신들이 행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주시는 그것에 놓여 있다고 한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과 또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전혀 변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위치를 주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계일 먼저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 면에서 할례는 새롭게 인식이 된다. 자신들을 만민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는 약속을 이스라엘은 받았으며 마침내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졌다(창 17:2~4). 또한 이 사실까지도 이스라엘에게 말렸다. 이스라엘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대로 남아있었다(롬 3:2, 9:4~5).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거나 은총의 자녀들이 믿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파기할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더욱더 나타내게 하신다(롬 3:30~3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꼭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아직도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다(롬 3:4). 시편 기자도 모든 인간의 거짓됨을 말하고 있다(시 116:11~14). 인간은 참으로 구원이 필요하다.

다윗의 범죄는 분명 나쁘지만 하나님의 기록한 의와 진리를 더욱더 드러내게 하는 역함도 하였다(시 51:4).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인간은 불공평하다고 말한다(롬 3:7). 참으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데 쓰여졌다면 무엇을 더 말할 것이 있단 말인가? 인간은 철저히 죄 아래에 있다(롬 3:10~18). 따라서 "하나님의 간과하심으로 인간의 죄악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심이 불공평하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한 이론이다. 죄인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으며 다만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롬 3:20).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로서 있기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롬 1:18, 3:9).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시 5:9, 10:7, 140:3, 36:1; 사 59:7~8).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롬 3:19). 또한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려 하심이다(사 143:2).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도록 도울 뿐이다. 개개인이 범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죄들이 아니라 그 근본인 죄성, 죄를 짓게 하는 그 형이다. 죄성은 끊임없이 인간을 주장한다. 오직 율법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힘이 죄를 짓는 것을 보게 한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충분히 안다. 그러므로 율법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입을 막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한다. 그러므로 결과는 분명하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 아멘.

하절기 저녁예배 시간 변경 (수요2부예배 및 금요찬양집회)

이번 주 수요2부예배(4월 8일) 시부터 저녁 7시 30분에 시작

EASTER DAY

⁽¹¹⁾But Mary was standing outside the tomb weeping; and so, as she wept, she stooped and looked into the tomb; ⁽¹²⁾and she saw two angels in white sitting, one at the head and one at the feet, where the body of Jesus had been lying. ... ⁽¹⁷⁾Jesus said to her, "Stop clinging to Me, for I have not yet ascended to the Father; but go to My brethren and say to them, 'I ascend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and My God and your God.'" ⁽¹⁸⁾Mary Magdalene came, announcing to the disciples, "I have seen the Lord," and that He had said these things to her. (John 20:11~18)

Today is Resurrection Sunday! It is the day Christians celebrate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Mary Magdalene was one of the first people to visit Jesus' tomb and see the risen Lord. She came early to the tomb, while it was still dark, and saw that the huge stone used to seal Christ's grave had been rolled away. She was surprised and ran to Jesus' disciples to tell them the news. Two of them ran back to the tomb with her and looked inside the opening. Both disciples saw that Jesus' body was missing. They saw His death wrappings lying on the ground, and that the special cloth used to cover His face was rolled up in a place by itself. They assumed that someone had probably stolen His body, and went home. Mary stayed and stood outside the tomb weeping; and as she wept, she bent down and looked into the tomb. She saw two angels in white sitting, one at the head and one at the feet, where the body of Jesus had been lying. The angels asked her directly, "Woman, why are you weeping" (Jn. 20:13). The angels understood that this was victory time, not crying time. They knew Christ had risen! Why was Mary crying on such a glorious and happy day?

Mary wept because she thought someone had wrongly removed Jesus' body. She loved the Lord. She knew He was unjustly crucified, and she thought that His missing body was just another cruel misfortune. She forgot Jesus' promise. He told His disciples exactly what was going to happen, "Behold,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and the Son of Man will be delivered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and they will condemn Him to death and will hand Him over to the Gentiles. They will mock Him and spit on Him, and scourge Him and kill Him, and three days later He will rise again" (Mk. 10:33~34). Jesus explained everything so clearly, but Mary and His disciples didn't really believe God's word. Their minds couldn't get past the reality of Jesus' death. Even though the empty tomb was evidence of His resurrection, Mary had her own will. She still believed that Jesus was dead. She thought that the enemy's power and authority was stronger than Jesus'. The lesson for us is that in hearing God's word, we need to doubt our doubts and believe in His word.

Mary wept because she thought she was alone. Jesus died. She wanted to take comfort in being near His dead body, but now that it was gone, she felt very lonely. Loneliness is hard to bear, and it is no wonder that Mary wept that first beautiful Easter morning. Jesus was really there, but Mary didn't believe it. She strongly held on to her own beliefs about what was happening. She told the angels she was crying "Because they have taken away my Lord, and I do not know where they have laid Him" (Jn. 20:13). She didn't know where Jesus was and this caused her great anxiety. The good news is that Christians are never alone. Hebrews 13:5 says, "Make sure that your

character is free from the love of money, being content with what you have; for He Himself has said, 'I will never desert you, nor will I ever forsake you.'" No one can take our Lord away. Jesus said,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18~20). Not only that, but no one can take us away from our Lord,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ed thing,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8:38~39). Unlike the two disciples who walked away from Jesus' empty tomb, Mary stayed. She was deeply devoted. The lesson for us is that we need to trust God completely, even when things don't appear right.

Mary wept because she thought her life was over. Before meeting Jesus, she was a woman possessed by seven demons. When she met Jesus, He healed her and she found her purpose for living. After Jesus died on the cross, she doubted the purpose of the Lord for her life. Jesus was with Mary all the time. He was there when Mary doubted, He was there when Mary despaired, and He was there while Mary cried and had given up all hope. Standing by His tomb, Mary turned around and saw a man whom she thought was the gardener. It was actually Jesus. Jesus said to her, "Woman, why are you weeping" (Jn. 20:15). Mary still didn't recognize Him, and she said to Him, "Sir,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tell me where you have laid Him, and I will take Him away" (Jn. 20:15). Jesus responded with one word, "Mary" (Jn. 20:16). At the sound of her name, she heard opened and her spiritual eyes saw Jesus. She said in Hebrew, "Rabboni! (which means, Teacher)" (Jn. 20:16). Jesus said to her, "Stop clinging to Me, for I have not yet ascended to the Father; but go to My brethren and say to them, 'I ascend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and My God and your God'" (Jn. 20:17). Mary listened and announced to the disciples, "I have seen the Lord" (Jn. 20:18). She told them what Jesus had said. The lesson for us is to remember that Jesus' presence is always with us.

My dear friend, today we remember Jesus Christ's resurrection! He conquered death and His victory gives us eternal life. Just as Jesus called Mary's name, so too He calls yours to tell you that He is with you. He is alive! There's nothing for you to worry or be depressed about! Jesus knows about all your fears and tears, and like Mary, He will dispel them all. The living Christ wants to give you peace and the purpose of living. Please trust in the Lord Jesus and believe His word, and know that He is always with you. He asked Mary to go and tell His disciples that He was alive, and He asks you also to spread the good news of His resurrection to all people. Amen. 

부활절

¹⁰⁰“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¹⁰²“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 ¹⁰⁷“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볼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¹⁰⁸“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11~18)



김성파 목사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각에 무덤을 찾아가다가 그리스도의 무덤을 막 아두었던 큰 돌이 굴러가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자 중 두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가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찢던 세마포가 땅에 놓여 있고 마리를 찢던 수건이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옮겨간 것으로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계속 무덤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곳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즉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어찌하여 우느냐”(요 20:13). 천사들은 지금이 슬퍼할 때가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떠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럽고 즐거운 날에 마리아는 왜 울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했다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또 다른 끔찍한 불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막 10:33~34).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마리아와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진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명확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대적들의 힘과 권세가 예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의심을 접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마리아는 외로움을 느꼈다

마리아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시신 곁에서라도 위로를 얻으려고 했지만 이제 그 시신마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외로움은 건지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마리아가 아름다운 부활의 아침에 울고 있었던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곳에 계셨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천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요 20:13). 그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크게 근심하였습니.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5는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

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누구도 우리의 주님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20). 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능음이 나 같음이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던 두 제자들과는 달리 마리아는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헌신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이 잘 되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는 일곱 구실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녀를 치유해 주셨고 마리아는 살아갈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님의 목적에 대해 의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와 함께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의심에 싸여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곳에 계셨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울면서 모든 희망을 포기해 버린 그 순간에도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의 무덤 곁에 서 있었을 때 마리아는 뒤를 돌아보다가 한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등산지킴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요 20:15).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없었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요 20:15). 예수님은 한 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마리아야”(요 20:16).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음과 영의 눈이 열리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히브리 말로 대답했습니다. “랍오니!(선생님)”(요 20:16).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볼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 20:17). 마리아는 들은 대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요 20:18). 그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주셨듯이 예수님은 또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염려하거나 낙심할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눈물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삶의 목적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수요1부예배 메시지 / 마가복음 강해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9. 4. 1.)

천사의 사역
(히브리서 1:7~14)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백히 느끼고 있다.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과 심판뿐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사로 보내주셨다. 우리는 천사의 사역을 통해서 매순간 우리를 놓지 않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 천사의 사역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은총의 자녀들을 돕는 데 있다(히 1:14). 바람을 통해서 불꽃이 일어나듯 천사는 바람처럼 우리 사역의 불꽃을 일으킨다(히 1:7).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무시하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롯은 천사를 만났고 그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시민들은 천사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희롱하려고 하였다(창 19:5).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있던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도 천사는 나타났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여 명뿐이었다(행 1:11,15). 천사는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우리의 영안이 닫혀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온 천사를 외면하게 된 다(히 13:2). 겸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도우시는 천사의 놀라운 사역을 보게 될 것이다.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도운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경건의 상징이었던 종교지도자들은 천사들을 볼 수 없었지만 비천한 신분의 목자들은 수많은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다(눅 2:13). 천만 천사(히 12:22),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마 26:53)라는 말씀처럼 천사들은 상당히 많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쫓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서 쓴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 때 책들이 쏜 놓였더라”(단 7:10). 시편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히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나이 산 성소에 계시니 감도다”(시 68:17).

하늘로부터 영광중에 나타난다 천사는 하늘로부터 영광중에 나타난다. 성탄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주변은 주의 영광으로 가득했다(눅 2:9). 예수님의 무릎을 찾았던 여인들도 영광중에 나타나신 천사의 모습을 보았다(마 28:2-3). 옥중에 갇혀 있던 베드로를 깨우고 죄사슬을 풀어주신 분도 광채가 나던 천사였다(행 12:7).

심판하고 진멸하는 사역을 집행한다 천사는 심판하고 진멸하는 사역을 집행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앗수르의 심판관 오진 명이나 되던 군사를 하루 아침에 죽게 한 것은 천사였다(왕하 19:35).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는 데 천사가 사역했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한다(대하 32:21; 행 12:23).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고집을 부리는 자들을 향한 천사의 사역은 매섭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고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아득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시 35:5-6).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한 명의 천사가 아닌 수많은 천사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를 돕는다(시 91:11~12).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하신 분은 천사였다(단 6:22).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주시고, 복음의 길을 열어 주신 분도 천사였다(행 10:3,22). “주의 사자가 밀림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행 8:26). 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음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천사의 사역 뒤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도 계신다(골 8:34; 히 7:25).

강하게 하신다. 용기를 주신다 천사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용기를 주신다. 완전한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는 예수님께 힘을 주었다(눅 22:43). 천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십이명의 형제에 빠진 여인들도 천사는 용기를 주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가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마 28:5). 천사는 신자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며 용기를 주신다.

경고하신다 천사는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경고해 주신다. 천사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요셉에게 경고하여 주었다(마 2:13).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심판을 받기 전에 롯의 가족이 피할 수 있도록 경고해 준 것도 천사였다(왕하 19:15).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천사는 우리에게 주님의 재판을 알릴 것이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 24:31).

하늘로부터 영광중에 나타난 수많은 천사들은 지금 구속 받을 상속자들 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심판하고 진멸하는 천사를 만난다. 반면에 매순간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천사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강하게 하신다. 또한 계속해서 보호하시며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해 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자기를 부린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곁에는 항상 천사들이 있다. 아멘.

마가복음 강해 65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라 (2:18~27)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욱 보수적인 부류였다. 이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믿었기에 바리새인들이 연구하고 발견하여 믿은 율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그들은 모세 오경에서 찾을 수 없는 부활과 천사,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행 23:8). 이와 같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였다(마 12:18).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여위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오르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으니라 할 형제가 있었는데 믿다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나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지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마 12:19~23). 이와 비슷한 일을 유대의 가족사에서 찾을 수 있다(창 38:1~11). 이처럼 부활이 있을 경우 모세의 율법(신 25:5~6)에 따라 행한 가족의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이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라 천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능히도 아니 하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마 12:24~25). 사두개인들의 편협한 성경관과 잘못된 신앙을 정면으로 지적하였다. 부활은 현실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들과 같다. 그런데 오직 모세 오경만을 신봉하던 이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던 모세 오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이고 다니엘서(단 12:2)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부활을 믿지 않는 어리석음을 보였다. 예수님은 모세 오경 중 하나인 출애굽기를 인용하여 사두개인들에게 질문하셨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 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나나무 열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

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임이요 이삭의 하나님임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마 12:26).

하나님을 볼 때 믿지 않는 열거나무로 모세를 부르신 뒤에 말씀하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출 3:6)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살아있으며 그들과 맺은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밝히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성경관을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 사두개인들은 교만과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이 믿지 않는 함정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교만과 자존심, 세사적인 부와 명예욕에 사로잡혀 말씀을 곡해하며 멋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 두 세계를 바라보자. 영원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자(고후 5:2~4).

“나팔 소리가 내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전 15:52~54).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에 앞에 설 것이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 것이다. 신자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할 것이다(계 7:9~12).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며, 예수님께서 속한 자들도 재림의 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고전 15:12,17,22~23). 사두개인 불처럼 고집을 피우며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말자. 부활의 하나님을 믿자.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자. 아멘.

제42대 장로 피택자(나이순)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문효식	15	87-653	노은영	23	92-62	구원섭	1	86-125
최경하	17	90-759	김영주	5	82-208	윤해균	18	87-27
최민석	15	95-18	이창희	10	86-24	김병성	12	92-47
백봉선	4	89-750						

제22대 안수집사 피택자(나이순)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연구	6	89-421	한종남	7	89-1330	김향태	10	95-321
최동식	5	95-237	백남제	7	79-352	김석제	14	90-383
정효석	9	89-420	윤순규	3	83-669	박진일	15	94-2006
권백용	22	85-969	박병선	23	87-437	김희동	4	85-639
정봉선	4	99-1102	이준희	22	82-576	홍금성	5	92-664
박성철	16	93-1321	최규태	2	95-124	문우식	21	90-117
최규옥	12	561	임병익	14	99-1050	김관선	8	2001-0380

제50대 원사 피택자(가나다순)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강길래	15	89-109	강복희	13	93-1188	강태연	4	92-1150
권경애	14	91-487	김경희	17	91-254	김순자	23	93-409
김승희	1	91-381	김신순	13	92-377	김영옥	18	516
김옥선	5	95-237	김정숙	19	92-154	김정숙	24	81-389
김정일	6	97-619	김정희	20	83-707	김지선	7	88-774
김하경	15	89-928	김학희	19	84-620	남명숙	24	91-300
도수자	9	91-1005	문성애	4	92-820	박정애	19	85-776
박혜옥	12	88-795	방영미	3	93-945	서인순	14	84-72
신정석	10	94-1962	신혜옥	15	93-1109	오명자	15	86-578
오영자	8	89-1160	오정례	1	2004-0509	유옥련	17	82-134
윤순희	6	83-311	이계옥	12	84-988	이명희	2	95-232
이미란	7	96-57	이설희	2	80-118	이성옥	20	91-278
이수인	14	88-252	이순자	24	95-1489	이영순	15	86-187
이정연	22	95-246	장금자	2	92-656	장선자	16	82-580
장세복	12	4422	장영숙	16	82-39	정의숙	11	84-1102
조성옥	11	4156	차봉선	9	84-169	채은실	24	86-566
최종란	5	88-257	한명자	11	3133	함진옥	21	4634
허미자	24	95-236	허준화	6	94-69	황민자	21	88-2
황호선	10	92-632						

*피택자(장로 피택자는 부부동반)는 오늘 찬양예배 후 베다니홀에서 피택자교육 개강예배를 드리오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은 불교 국가였습니다. 적도 근처에 위치한 나라여서 덥고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보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곳곳마다 불경이 울려 퍼졌으니 주님은 운전기사까지 예비해 두셔서 밖에서 아무리 불경소리가 퍼진다고 해도 버스 안에서는 중언교회 찬양 CD를 틀으며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그냥 갈 수밖에 없을 때에는 주님께 “저 마을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 그 마을에 큰 복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매시간마다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영적 무장을 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할 때에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사랑이시다.”라고 열다섯 문장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아이들은 “아멘.” 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떠날 때까지 따라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는 돌아온 한 영혼을 기뻐 여기며 천국잔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며 돌아왔습니다. 속소로 돌아와서는 평가회를 통해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하며 하루를 정리하였습니다. 팀원들은 나처럼 나이도 어리고 기도 작았지만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로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팀원 하나하나가 예수님만을 믿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희는 씨만 뿌리고 왔지만 그 씨앗을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한 영혼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써져서 먼 훗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김예진(중동1부 2팀)



자신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선교를 가기 전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많이 부족하게 잘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언어, 시간부족, 음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과연 1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난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조금은 자신이 생겼다. 처음 사역을 할 때 뒤로 숨고 싶고 쫓겨나면 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차츰 변화가 생겼다. 내가 이 선교지에 사는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선교지에 온 목적이기 때문이다.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람기도 했다. 또 학교에서 만난 남학생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매일 저녁평화회를 하는데 모두들 더 담대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웃는 얼굴을 하는 것과 전도할 때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난 계속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이 나중에 큰 열매가 될 수 있게 기도할 것이다.

최한나(중동3부 1팀)

십자가에 나도 죽게하시고

먼 산에는 아직도 흰눈이 보이고 아침의 날씨는 웃짓을 여미게 하는 봄의 길목이지만, 아련히 느껴오는 바람의 여운은 부활절이 다가 오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소망없는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은 찬바람 몰아치는 겨울 같지만 담장 옆 묵련은 작은 꽃망울을 머금고 있다. 대지의 자연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조용한 몸짓으로 최첨단 인간들이 들으려는 듯 찬양하고 있다.

어둡고갈고 한겨울 같은 이땅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죄인을 찾아주셨다. 사순절의 새벽기도회는 죄인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마지막 고난의 길을 조금이나마 느끼고자 새벽을 깨우며 아내와 함께 예수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 주님 달리신 고난의 십자가에 나도 죽게하시고 두 개의 세계속에 존재하는 내 속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광스런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과 연합할길 소원하여 십자가 앞에 섰다.

모든 생활이 성급요일에 집중된다. 충현한양대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게 될 성급요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과 기도로 마음을 모은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용히 찬양한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다.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다 당한것일세. 그 흉한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라. 그 귀한 주의 사람이 날 구원하시니 그사람 나도 본받아 주 위해 힘쓰라." 아멘.

안준호(안수집사, 3교구)

주 내 안에 계시니 주님 은혜로다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가리라
내가 사는 것은 다 나의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오 놀라운 주님의 은혜!

얼마 있으면 부활절이다. 그동안 사순절을 맞이해 저녁묵시를 했다. 묵석을 두고 새벽기도를 하면서 저녁 한 끼 정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던 기적이 포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막상 식사를 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 먼저는 나의 욕구를 참는 일이 힘들었고 같이 식사해야 하는 식구들에게 괜히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가끔 만나던 친구들과 저녁약속을 하면서 쭈뼛쭈뼛 "이런 어찌지? 금식이라서 밥은 먹기 힘들것 같아!" 하며 죄지는 사람 마냥 굴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육신의 정욕, 안락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들들로 떡뭇기가 되게 하라."는 사탄의 시험에 사람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면서 첫번째 유혹인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셨다.

내가 저녁금식을 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나니 소년부 교사로서의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있어 변화가 생겼다. 얼마전 소년부 교사를 대상으로 '나는 어떠한 교사인가?'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일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평소에도 언제 공과를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여지없이 '목사님과 준비하는 시간 외에는 다 공부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주 중에 소년부 아이들을 위해 언제 기도하느냐?' 라는 또 다른 질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답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모른다. 그런 내가 사순절을 맞아 새벽기도와 저녁금식을 통해 이제는 새벽제단에 우러난 아이들이 아문, 한 명 한 명을 세우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다. 주 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다음 주일공과를 펼쳐보게 된 것도 이 기간 동안 주님이 베푸어 주신 큰 은혜이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위대한 권능에 순복하게 되니 아이들을 위한 기도와 공과 준비가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다가왔다. '오! 놀라운 주님의 은혜! 주님께 가까이 드리겠다고 순종할 때 내 자신이 변화됨을 느낀다. 앞으로도 주님의 종으로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소년부를 섬겨야겠다.'

임동현(교사, 소년부)

나의 이 고난은 너를 위함이라

종려나무 가지들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친 죄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고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와 상관 없이 없다고 부인한 자가 저였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면류관을 씌우고 못 벗기고 침 뱉고, 회통한 자가 저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저에게 예수님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고난은 너를 위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예수님께만 십자가를 지우고 현실의 안락과 희락에 만족하며,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중에라도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믿을 없음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괴로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임목사님 설교 중에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깨닫게 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오버 카운팅(over counting, 지난 죄를 묻지 않으세요) 하지 않으세요!"라는 말씀이 저에게 참 자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고난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내 감정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아직까지 이 세상 속에 사는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십시오! 천국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하기를 소원합니다.

김경희(집사, 1교구)



진정한 생명의 빛

사순절 기간이다. 새벽 4시에 흥은동 주유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구역식구들을 생각하며 옷을 입은 채로 소파에서 자다보면 자정 이후로는 심심한 간격으로 잠에서 깨곤 한다. 새벽 3시 40분에 집에서 나와 차에 시동을 걸고 찬송테이프를 틀고 내 새벽도로를 달려 갈 때면 내 마음은 어느새 길가 가로등의 불빛처럼 환해진다.

18년 전 나는 사순절 새벽기도회에 처음 참석함으로써 충현교회에 오게 되었다. 당시 중학생이던 이들은 교회근처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기도도 묵상도 있었던 나는 병원직원으로서 보이는 십자가를 발견하고 무작정 찾아갔는데 마침 사순절 새벽기도 기간이었던 것이다. 나는 사실일 동안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였고 성령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마 7:1-2)라는 말씀으로 나를 길게 회개시키셨고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충현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사순절을 통하여 드리는 나의 기도는 가족들과 함께 부활절 첫예배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이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느낀 나의 심령 속에 심어주시기를 기도한다.

예수님은 수난 당하심으로 남은 불 한 방울까지도 쏘아내셨을 때 예수님 안에 숨은 하나님의 능력이 빛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우셨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알몸이 되고 목숨을 빼앗겼을 때는 어떠한 것인가? 참혹하기만 할 것이다. 혹 우리에게도 빛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난 때와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영의 눈을 열어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셨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구역 식구들, 그리고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시어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

김경희(집사, 1교구)

십자가의 길 / 청지기칼럼

십자가의 길

고 남 주 갑

고난주간은 사탄의 절기 내에 포함된 절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십자가에 달리 죽으신 고난주간을 생각하면, 참된 주님이다. 이 특별한 고난주간이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출 6:3-5; 고전 11:23-26)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난주간이 기독교의 공식적인 절기로 공개적으로 지켰던 것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신앙 자유령이 포고된 이후였다.

철요일~수요일 고난주간의 철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특별집회의 형식으로 모였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화요일에 철야집회를 갖는데, 이때 묵사는 갈라산에 올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마태복음 24:4 이하의 성경을 낭독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요일에는 마태복음 26:74-76의 기록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부분의 말씀이 낭독되었으니, 이때 회중은 은 크로리 회가의 기도를 드린다.

세속 목요일(Maundy Thursday) 세속 목요일(Maundy Thursday)의 Maundy는 복을 뜻하는 라틴어 Mandatum이며, 수난을 당하기 전 조코왕에게 제자들과 함께 거행할 주심을 기념하는 데서 유래하였다(요 13:24). 그리고 이 날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치실 때의 죄를 씻기라는 의미를 기념하는 데서 복을 행하신다는 이것은 회개한 자에게 화해함으로서 그 죄를 받아들이는 사마의 것이다. 또한 이 날은 예수님께서 거세때에 종신에서 몸이 땅을 같이 할 정도로 기도하여 다음 날 있게 될 십자가의 지조를 대비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셨다.

성경 속 Holy(Holy) Day 성경에는 하나님께 성전을 구원하여 주고 보답신 그리스도에게서
서 마친날에 따라 죽은 자도 친한데 그 간을 내다 치르시와 인간을 죽음에서 생명의
로 이끄신 날이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걸리신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께의 생애를 통해 인간을 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의미에서 이 날을 Good day
Friday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날은 성서 모든 성도들에게 슬픈 날임에 틀림없다. 즉 성경 속의 인간과 고난과 죽음을 이기는 날이기 때문에 성전을 행했으면 새벽부터
밤까지 예수의 신가를 가졌다. 이 날에는 가장 아름다운 금식과 찬양기도를 하였다.

성 토요일(Holy Saturday) 대안식일, 즉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셨던 동안인 성토요일은 성금요일보다도 더 엄숙한 날로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경건한 분위기 아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기념되었다. 따라서 이 날은 교회력 가운데 가장 엄격한 금식의 날이기도 했다.

새가조양육부 3월 수료자 ①

소망의 예수님은

예수님은 외로우시고 선하시며 거룩하시고 늘 사랑이십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도 은총을 주시는 분입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회개를 하면 죄악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전예수)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며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과 새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미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힘들고 불안했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편안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며 부정적이고 어두웠던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귀보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에 나오며 영적 평안을 얻습니다.
또한 살아가신 하나님과 교통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노는 날로만 여겼
던 주일을 오직이 주님 앞에 막리게 되었습니다. (아우미)

예수님은 죄 많은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늘 애매히게 하루를 살아가는 날들이 행복합니다. 남을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늘 어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인생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와이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네가 또 이 고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택한 것을 그 날까지 그 높이 지니 줄을 약속하였노라”(단 9:11, 12).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와 서천의 나치네 나는 아파스트 단 지 내의 한 교회에서 새례를 받았다. 그것은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의 거듭 남은 없었고 구원의 기쁨과 각박이 없는 단한 새례이고요는 형식적인 의식 절차에 불과했다. 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성 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의 체험 없이 삼십대를 성 전 돌란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의 교회였다. 여전히 세상 풍조를 좇아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세상과 구별된 삶의 변화 없이 여러 교회를 순 려한 끝에, 22년 전 어머님이 다니시는 총신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충현교회에 등록한 후에 여러 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였으나 나의 생활에는 별다른 큰 변화가 없었다. 10여 년 전 직장에서 벗어나 자영업에 하게 되어 좀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5년 전, 나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 나를 갱신하였다. 그날도 주일찬양예배를 드린 후 공원에서 애잔과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이마에 시큰박을 흘리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 의식을 잊고 흐르고 급급하여 심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나의 의식을 잃고 심폐소생술을 하여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 그후 심장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수술 직후 병원 내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며 한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

수술 후 5년이 지난 요즘을 무덤덤한 회고생활로 다시 돌아온 나 자신을 돌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실각자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은 너무나 멀고도 긴 여정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대한 사람들의 말을 배려해서 남보다 나 자신이 죄의인을 고백하게 되었고, 세상의 험한 가치관을 내려놓고 저 너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총을 누리는데 힘쓴다. 이제 인생의 종점을 향해 가고 있는 나에게 남겨진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복음에 빛진 자로서 복음 증거의 삶을 실천하면서 사기를 다짐한다. 합당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 대한 그 은혜대로 하심이라”(후루 1:9).



오재일
(안수집사, 12교구)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82	보개	25	외선부	김종현(21)	507	임혜복	21	초등부	최명진(21)
483	이동철	19	고등부	정승환(20)	508	임경호	14	고등부	서민정(14)
484	이백아	19	대학부	김정재(24)	509	이무빈	6	소년부	윤승호(6)
485	이민지	19	중등부3	김정재(24)	510	이재민	6	유년부	윤승호(6)
486	변 국	20	장년2부	표영철(7)	511	한은희	19	장년2부	장미진(19)
487	강진호	13	장년2부	이정호(13)	512	이우진	9	유년2부	이우진(9)
488	김재현	6	중등부2	김정필(5)	513	이정민	9	고등부	김지현(9)
489	남영진	9	장년4부	정영희(11)	514	조승훈	18	소남부	김지현(18)
490	최종진	16	중등부	이종훈(16)	515	김정일	9	고등부	홍준진(9)
491	김필미	21	장년2부	정연진(12)	516	김준수	9	고등부	홍준진(9)
492	김삼기	9	장년3부	안선희(9)	517	김우진	9	고등부	홍준진(9)
493	안나훈	18	대학부	이영준(24)	518	양정숙	1	청년1부	구영태(18)
494	강 할	2	장년2부	이정환(16)	519	윤영진	16	장년1부	이재현(17)
495	박영준	2	장년3부	이정환(16)	520	이준호	16	장년1부	이재현(17)
496	이정민	19	장년2부	김민서(19)	521	이정민	25	해마다	한영철(22)
497	김민수	23	고등부	김승연(9)	522	박재현	13	장년1부	한영철(22)
498	김민철	6	고등부	남남희(9)	523	신동호	13	중등부2	한영철(22)
499	장동진	13	장년2부	장미진(13)	524	이아름	9	청년1부	전예숙(21)(14)
500	강진진	11	청년1부	문영자(14)	525	이재하	14	청년1부	이재하(6)
501	소순규	8	중등부1	한현석(2)	526	김민수	5	장년1부	이정재(6)
502	이영선	13	장년1부	홍찬(12)(24)	527	이재현	17	대학부	문순환(13)
503	차지은	13	유년부	정복호(13)	528	정재현	23	대학부	문순환(22)
504	김지현	9	장년2부	김민서(9)	529	김민수	23	대학부	문순환(21)
505	정재현	15	장년2부	구승환(15)	530	김정훈	20	소남부	
506	최정희	9	고등부	유지자(9)	531	윤정민	2	청년1부	이명옥(9)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